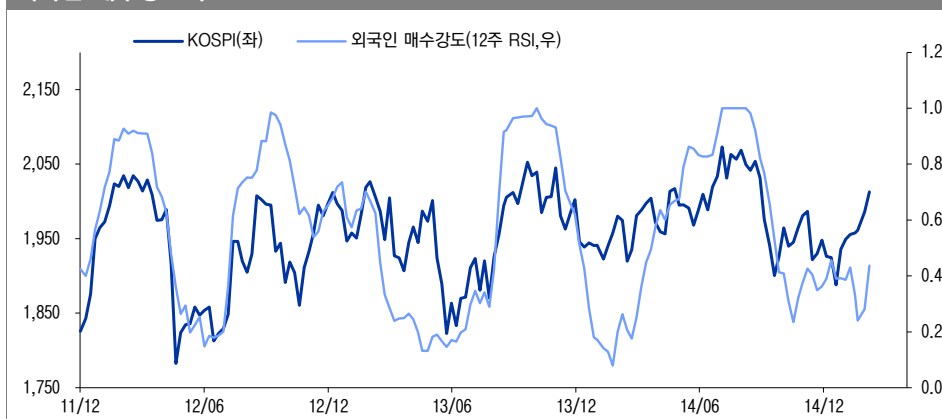


Market behavior **엿보기****eBEST EDGE****연초 시장의 단상: 외국인 매수****Investment Edge**

15년 초반 시장흐름이 나쁘지 않다. 지난해 연말 한국시장을 매도하던 외국인도 2월부터 한국시장을 다시 매수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매수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특징은 외국인 매수강도보다 코스피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어있던 수급의 반작용이 컸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일종의 매도공백).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시장을 강하게 매수했던 아시아계 자금 즉, 일본과 중국의 자금유입 강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계 자금은 등락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계 자금의 경우 2월에 모두 매수를 했지만, 지난해 4분기 매도 규모에 비하면 매수규모가 크지 않다. 한국시장을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듯한 흐름은 아니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에 상장된 한국관련 ETF에 반영되어 있다. 외국인 매수강도도 한국관련 ETF와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그림3). 해당 ETF는 아직 저점에 머물러 있다. 한국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시장을 다른 시장과 비교해 비중확대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외국인 매수강도와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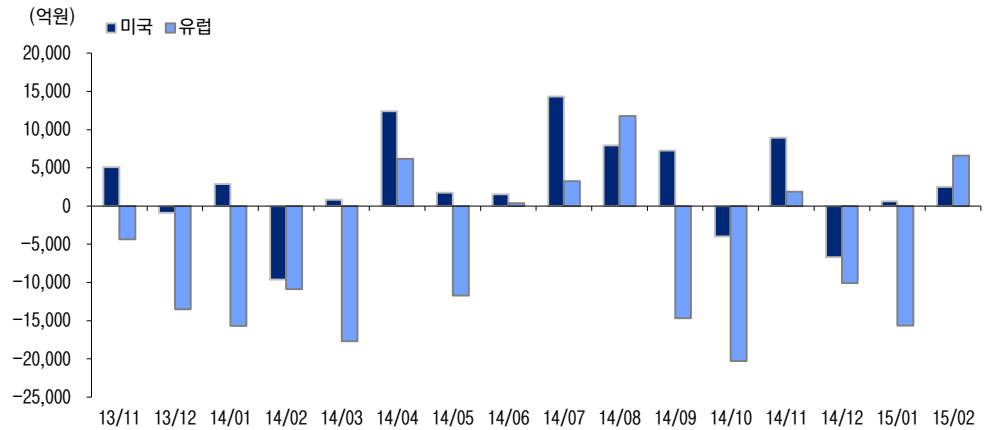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이 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퀀트/투자전략****양해정**

02. 3779-0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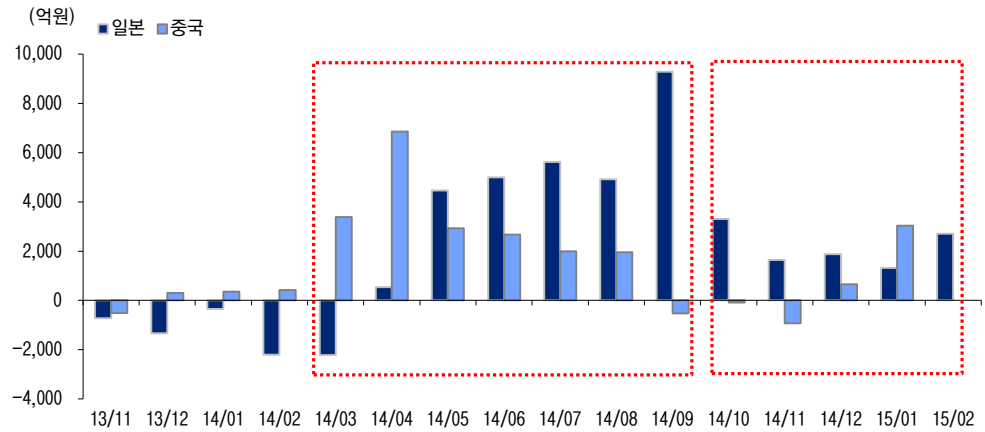
hjyang@ebestsec.co.kr

그림1 규모가 큰 미국, 유럽계 자금은 단기적인 움직임



자료: 금융감독원, 이 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아시아계 자금은 꾸준히 유입, 규모는 14년 상반기보다 감소



자료: 금융감독원, 이 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MSCI Korea ETF(EWY): 최근 외국인 매수강도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자료: Bloomberg, Quantiwise, 이 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양해정)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